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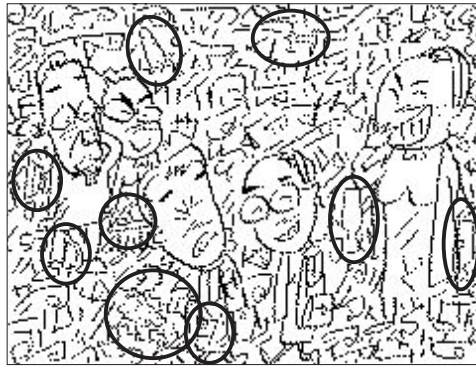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16>



찾아(보)세(요) 프라이팬, 립스틱, 팬이, 다리미, 사람 옆 얼굴, 열대어, 바늘, 갈매기, A자

사투리 후보

어느 사투리가 심한 국회의원 후보가 시골 선거구에서 공약을 하고 있었다. "이곳을 강간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석구석에 도로를 간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다른 후보가 나섰다. 그는 전직 외무부 장관이었다.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강간이 됩니까? 관공이지... 또 간통은 됩니까 관통이지..." 들고 있던 사투리 후보가 화를 냈다. "이보시오. 전 예무부 장관! 당신의 예무나 잘하지 선거엔 왜 나왔소?"



지난주 정답

서클룩, 사자, 펜촉, A자, 음표, 갈매기, 불린핀, 당근, 다리미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신영순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이진경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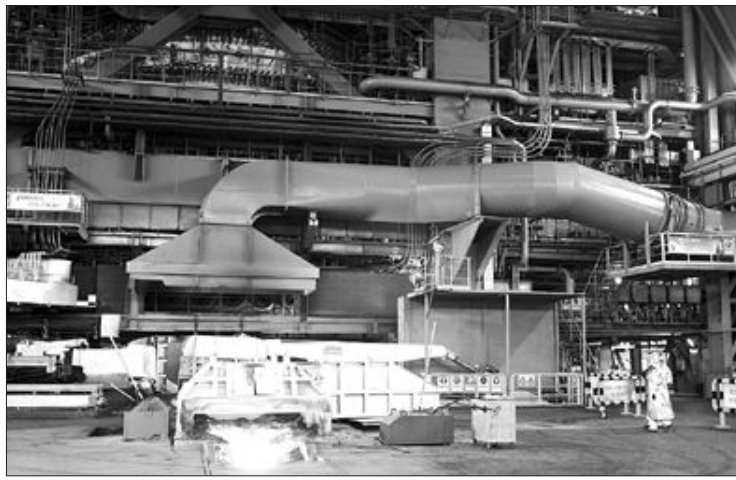
3월 20일 철강왕국 '포항제철' 탄생

1994년 국내기업 최초의 뉴욕증시 상장. 1995년 런던증권 시장 상장. 1998년 조강(粗鋼·제강로에서 제조된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강철)생산 세계 1위의 철강회사.

한국 경제의 성장 중심에 있었던 포항종합제철(주)은 국내 유일의 고로(高爐: 용광로) 업체로 철강 등 주요 기간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68년 3월 20일 회사 창립 총회를 갖고 제철소 건설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한국 철강산업 발전의 꿈은 1960년대 정부의 종합제철 건설 계획 수립과 함께 시작됐다. 1968년 창립한 포항종합제철은 1973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강 103만 t의 1기 설비를 준공하고 국제 철강 협회에 가입했다. 네 번의 확장사업 끝에 1983년에는 조강 910만 t의 포항제철소를 완공하면서 '영일만'의 신화를 만들었다.

1985년에는 광양 1기 착공을 시작해 광양만의 역사도 새로 써내려갔다. 1992년 광양제철의 종합준공식을 갖은 포항종합제철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제철소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선도하던 포항종합제철은 2000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영화됐다. 민영화를 통해 '포스코'(POSCO)라는 이름으로 거듭났



지난해 5월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장 준공식을 갖고 차세대 철강생산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도입했다.

다. 지난해 5월 30일에는 세계 최초로 기존 용광로 공법을 대체하는 포스코 파이넥스(FINEX) 공장 준공식을 갖고 세계 철강사를 새롭게 썼다. 파이넥스 공법은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을 거치지 않고 철광과 유연탄을 고로에 직접 넣어 그대로 쇳물을 뽑아내는 신기술이다. 기존 용광로 공법에 비해 쇳물 제조원가를 15~17%가량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공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파이넥스 공장은 2004년 8월 포항제철소 내에 착공해 1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년 만에 준공했다.

2008년에는 조강 생산 5천만 t을 목표로 세우고 베트남, 인도 등에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등 우리나라 철강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카펫 청소와 보관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사용했던 카펫을 청소하고 새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카펫 청소

카펫 표면에는 머리카락이나 미세한 먼지가 묻어있기 쉽습니다.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유리 테이프로 머리카락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주세요.

소금을 뿌렸다가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가 소금에 달라붙으면서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깨끗이 제거되고 카펫의 빛깔도 한층 선명해집니다.

▲카펫 보관

카펫을 걷어 빨래대 같은 곳에 놓고 두들겨 먼지를 털어주세요. 진공 청소기로 남은 먼지를 제거한 다음 중성세제를 약간 폼 물에 타월을 적셔 카펫 구석구석을 닦아주세요. 세탁이 끝나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보관할 때 카펫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동그렇게 말아두면 습기와 더러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19일(음 2월 12일 戊午)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Go board game section titled '광주인간양육연구소' (Gwangju Human Raising Research Institute). Includes a large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참고도' (reference diagram) showing a specific Go position.

Baduk (Go) section titled '바둑소식' (Baduk News). Includes a '바둑소식' (Baduk News) header, a '박지은 여류국수전 반격' (Park Ji-eun's comeback in the Women's Professional Go Championship) article, and a '바둑소식' (Baduk News) footer.

English section titled '굿모닝 잉글리쉬 <1120>'. Includes the text 'I've still got a lot of work to do' and a dialogue between A and B. A: Are you ready? B: I've still got a lot of work to do. A: How about if we go tomorrow instead? B: That sounds good.

Japanese section titled '오하오우 니혼고 <1120>'. Includes the text '雪(ゆき)みたいです네' and a dialogue between A and B. A: ああ、すごいですね。花(はな)が風(かぜ)で散(ち)ってきれいですね。 B: 本當。雪(ゆき)みたいです네。 A: 櫻(さくら)の花(はな)も多(おほ)いけれど、人(ひと)も多(おほ)いですね。 B: 日本人(にほんじん)は花(はな)を見(み)ながら、飲(の)んだり食(た)べたりするんですね。

Chinese section titled '니하오 풍구위 <97>'. Includes the text '公園的人多嗎?' and a dialogue between A and B. A: 公園的人多嗎? B: 小多。 A: 公園的人多嗎? B: 很多。 A: 公園的人多嗎? B: 很多。 A: 公園的人多嗎? B: 很多。

Chinese section titled '한자 이야기 <707>'. Includes the text '一寸光陰(일촌광음)' and a dialogue between A and B. A: 一寸光陰(일촌광음)의 일촌(一寸)은 손가락 한 마디, 또는 길이의 '한치'라는 매우 짧은 것을 나타내고, 광음(光陰)은 빛과 그림자, 해와 달이라는 뜻에서 흘러가는 시간(時間), 세월(歲月), 때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촌광음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된다.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우연히 짓는(偶成)이라는 시가 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소년易老學難成, 少年易老學難成, 아주 짧은 시간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네 (일촌광음불가경, 一寸光陰不可輕). 연못 뒤의 풀은 채 꿈도 깨지 않았는데 (미각지당춘초몽, 未覺池塘春草夢).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은 이미 가을소리를 내네 (계전오엽이추성, 階前梧葉已秋聲). 이 시는 학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문을 열심히 하라라는 권고의 시로서 배움에도 때가 있으니 짧은 시절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시를 흔히 송나라의 대유학자인 주자(朱子, 1130~1200)의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로 알고 있지만, 주자 이전에 이미 비슷한 작품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woman and child, with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www.cafe.daum.net/sajoo114'.